



▲좌로부터 당진지부의 신인철 지부장, 공동방역단의 조주형 방역요원, 채란희 간사, 차선수 총무, 김기웅 수의사

## 뛰어난 방역활동으로 구제역 차단에 성공한

# 충남 당진지부

취재: 정재은

당진군은 지난 2002년 5, 6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과 인접해 있으며,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충남 천안과 함께 경계지역이었다. 또한 당진에서는 소규모 농가가 많아서 농가 교육 및 농장방역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주변에 서해 고속도로가 있어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도 불구하고 신인철 지부장(46세)과 75명의 회원들이 관·군 및 여러 축산단체들과 단합하여 공동방역단으로 활동하면서 성공적인 차단방역을 이루어냈다. 신인철 지부장은 "우리 당진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회원들이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질병 발생을 막아낸 결속력이 강한 지부이며 긍지를 갖고 있다."고 전

했다.

###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관·군과 함께 회원 모두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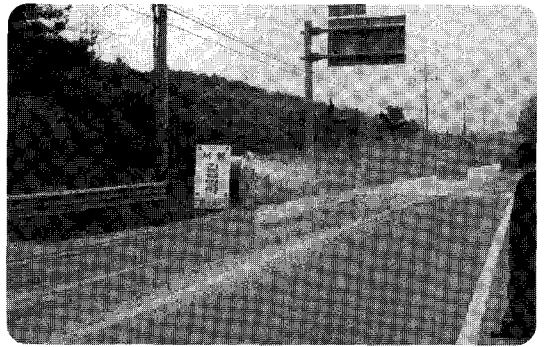
지난 2002년 4월 18일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을 때, 19일에 도 회의가 있었고, 23일에는 당진지부와 당진군 축산과의 협찬으로 양돈농가 대상 교육이 개최되었다.

또 5월 2일 구제역이 발생하자 7월 15일까지 75일 동안 관·군과 함께 당진지부는 신인철 지부장을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참여한 당진군 공동방역단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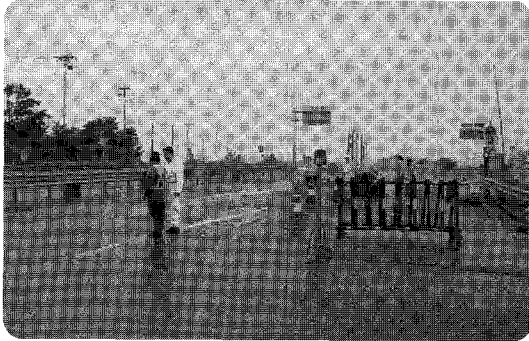
당진은 송악 톨게이트, 당진 톨게이트, 삼교천 3군데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다. 당진지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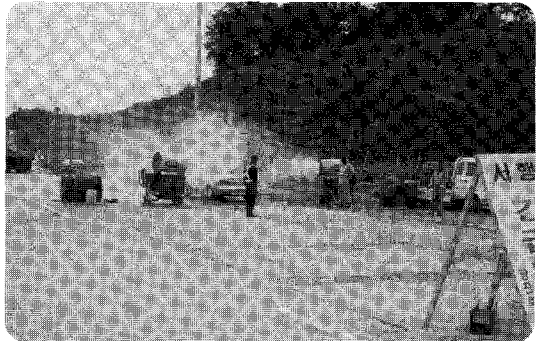
▲송악단의 방역활동 모습



▲구룡검문소의 방역활동 모습



▲운정검문소의 방역활동 모습



▲당진단의 방역활동 모습

서는 각 농가의 자체적인 소독과 방역은 물론 송악 톨게이트 이동통제 초소를 전담하고, 주요 도로 11개소에 차단방역대를 설치해 놓고 비육회, 낙농회, 당진축협, 낙농협동조합과 함께 회원들 3명씩 교대로 방역활동에 동참하였다. 임원들은 수시로 점검을 다녔다.

공동방역단은 조주형, 유재권 방역요원, 김기웅 수의사를 주축으로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예찰반을 편성해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등의 가축전염병 채혈검사와 예찰활동, 방역 홍보활동을 하였다. 또한 공동방역단을 구성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활동을 지원하였다.

신 지부장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시 당진군, 충남가축위생연구소통합지소, 당진방역단, 공수의 및 당진지부 읍·면 책임자가 합동으로 예찰반을 편성, 운영한 것이 성공적인 차단방역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당진지부의 이처럼 아낌없는 인력 지원과 함께 당진군(군수 김낙성)에서도 본회 당진지부의 요청을 받아 구제역 방역기간 중에 600 만원을 지원해 소독약과 휘발유 공급을 원활히 하였다. 또한 농장방역 축구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마을방송 및 유선방송을 통해 방역과 의심축 조기신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 끊임없는 노력으로 돼지오제스키병 청정화 선언

돼지오제스키병은 1999년 3월 관내 양돈장에서 첫 발생 이후 44개 농장이 감염되었으나, 해당농장의 강력한 근절의지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채혈검사, 양성돈 도태,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2년 9개월만인 2001년 12월에 종식시켰다. 그 후 2002년 7월, 1개 농가에서 재발하였으나 양성돈을 도태함으로써 2002년

12월 완전히 청정지역으로 선언하였다.

신 지부장은 이를 위해 “당진지부를 중심으로 돼지오제스키병 근절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감염농장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백신 및 유효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발생농장에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 회원수 2배로 늘어 전체 사육 두수의 80% 차지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 위치한 당진지부는 지부 회원 7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는 40명 안팎이었는데, 2001년 선임된 신인철 지부장이 배 가까이 회원을 늘렸다. 임원은 신인철 지부장, 차선수 총무, 부지부장 3명, 감사 2명, 이사 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진군의 양돈현황을 살펴보면 830호 농가가 24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75명이지만, 회원 전체 사육두수는 18만두(모든 1만8천두)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사육두수는 2천5백



▲신인철 지부장

두 정도가 된다. 회원의 사육두수가 당진군 전체사육두수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매산단지(모든 2,000두 규모), 고대단지(모든 1,200두 규모)와 현재는 개인 소유가 된 구 석문단지(모든 1,000두 규모)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지부는 공동구매 사업 등 별도의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한달에 2만원씩의 회비와 모든 두당 1,000원의 거출된 자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더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1월말에 지부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각종 지원사업과 불우이웃 돕기 등 다양한 행사·교육 개최

당진지부에서는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악성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소독약과 방역복을 회원들에게 무상 제공하였다.

또한 당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노의 악취제거를 위한 발효제와 종돈 개량을 위한 자금 지원을 회원들에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또 당진군에서 시행한 기존의 구 건물을 합법화하는 무허가 축사 양성



▲신인철 지부장(좌측)과 차선수 총무



▲2002년 5월 2일 구제역이 발생하자 7월 15일까지 75일 동안 당진지부 회원 모두가 참여한 당진군 공동방역단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진지부는 송악 톨게이트 이동통제 초소를 전담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구제역 차단에 성공하였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당진지부 사무실

화 제도의 혜택을 회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지부장은 "2001년도에는 회원들이 불우 이웃 돕기에 동참하여 500kg의 돼지고기를 소망의 집, 평안마을 등에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진지부 회원들은 도드람연수원이 축산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사양, 시설, 환경, 분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양돈 교육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북대 조성구 교수를 초빙해 양돈봉침 교육을 실시하였다. 매산단지 등 대규모 양돈농가는 봉침을 직접 활용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유재일 컨설턴트에게 시설, 환기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도 하였다. 회원 전체가 서울 COEX에서 열린 축산박람회에 참석하여 여러 종류의 기자재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당진터미널 앞에서 축협과 합동으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2002년 바쁜 방역 활동으로 인해 몇 번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월례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있다.

문자 서비스를 통해 회의 안내 뿐만 아니라 돼지콜레라 발생 등의 긴급한 사항이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간의 친목을 위해 야유회나 축구대

회를 종종 개최한다. 신 지부장은 "돈가하락과 질병 발생 등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합이 가장 중요하며,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정예화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돈가 전국평균 고시, 계절성 질병과 분노 처리, 소비홍보를 강조

신 지부장은 돼지가격의 기복이 심하면 회원들이 양돈을 경영해 나가는데 혼란이 크다고 하며, 돈가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전국평균 가격으로 고시하는 것을 중앙회 차원에서 정착화 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계절성 질병인 TGE, PED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TGE Rota 백신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양돈을 해 나가는데 분노를 해양투기하는 등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시·군 등 행정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선수 총무는 "자조금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간의 TV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돼지고기가 폐 속의 먼지 농도를 낮추어 주는 등의 학술적인 뒷받침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돈**